

세창서관에서
발행한 딱지본
영웅소설 표지의
서사: 1952년대
발행본을
중심으로
Narratives on
Heroic Novels
Ttakjibon
Cover Designs
Published
by *Sechang-*
seogwan:
Focusing
on the 1952
Edition

성유정
Sung Yujung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BFA Program,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 서론
 - 연구 배경과 목적
 - 연구 방법과 범위
- 본론:
딱지본 영웅소설 표지 분석
 - 유형 1
 - 유형 2
 - 유형 3
 - 유형 4
 - 이 외 유형
- 결론

지도교수: 김소연
Supervisor: Kim Soyoun

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1952년에 세창서관이 활발히 발행했던 딱지본 영웅소설의 표지를 분석하고, 이에 담긴 시각적 양상과 서사를 통해 그 간행 의의를 발견하는 것이다. 딱지본을 간행했던 여러 서적상 중 세창서관에 주목한 것은 시기적인 이유이다. 세창서관은 모든 서적상을 통틀어 가장 많은 딱지본 고소설을 간행했는데, 그 중 상당한 양을 1952년, 즉 딱지본이 이미 쇠퇴하고 있는 시기에 간행했다. 그런데 이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한국전쟁이 발발한, 대한민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격동의 시대이다. 이러한 시기에 맞물린 세창서관의 독특한 간행 양상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영웅소설을 많이 간행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이에 관해 고찰한 선행 연구가 있어¹⁾ 흥미로웠다. 하지만, 그 연구는 간행 양상에만 집중했기에 딱지본의 정체성에 큰 역할을 한 영웅소설 표지만의 시각적 특징을 도출한다면, 이 시기 세창서관의 딱지본 간행 의미와의 연관성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으로 이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 시기, 세창서관, 영웅소설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 사이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특정한 의도적 맥락을 딱지본 영웅 소설 표지에 담긴 서사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1) 엄태웅, 『세창서관의 활자본 고소설 간행 양상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제64호, (동양고전학회, 2016): 그러나 오히려 해방 이후, 즉 고전소설의 시대적 소명이 희미해진 시기에 상당한 양의 활자본 고전소설을 간행했다는 사실로부터 세창서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Background and Purpose

Sechangseogwan's unique publication pattern during this period had a clear intention for sure. In particular, I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many heroic novels were published. It was interesting to see that there has been a previous study that looked at this point. However, since the study only focused on the aspect itself, I started this study with the possibility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reveal the meaning and connection with the publication of *Ttakjibon* in *Sechangseogwan* during this period by discovering the visual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 of the heroic novel covers which played a critical role in setting the identity of *Ttakjibon* published by *Sechangseogwan*. Analyzing the narrative contained in the cover of heroic novels in *Ttakjibon* format, I tried to figure out a specific intentional context presumed to exist between three keywords: the period of national chaos caused by the Korean War, *Sechangseogwan*, and heroic novels.

1.2. 연구 대상과 방법

1952년에 세창서관에서 간행했던 딱지본 영웅소설 중 대중에게 널리 읽혔던 작품 10가지, 『곽해룡전』, 『금방울전』, 『설인귀전』, 『옥단춘전』, 『유문성전』, 『유충렬전』, 『장백전』, 『장화홍련전』, 『전우치전』, 『조웅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영웅소설 속 어떤 장면이 묘사되었는지 작품 줄거리와 시각적 근거들을 비교하여 공통 양상과 그 유형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래 모든 작품의 분석을 진행했지만, 지면상의 한계로 인해 대립 상황별로 도출한 네 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표지와 비교한 각 작품의 줄거리는 모두 소개하되, 시각적 근거는 유형별로 한 가지 작품 만을 보여주고자 한다.

2. 본론:

딱지본 영웅소설 표지 분석

2.1. 유형 1

상대편이 주인공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장면

(1) 장면분석

① 『곽해룡전』 [그림 1]

- #1. 주인공 해룡은 설산도 귀양지에 있는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이미 진번국에 잡혀간 뒤였다.
- #2. 해룡이 반역을 꾀한 진번국을 다시 치고 아버지를 구출하여 황성으로 개선하자, 황제가 전일의 잘못을 뉘우친다.
- #3. 해당 표지는 두 가지 장면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그림 안에 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장백전』 [그림 2]

제목 옆에 적힌 글은 '장백이 천명을 수하여 원 황제의 항복을 받다'라는 문장으로, 장백이 원나라 주원장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항복을 받아내고 있는 장면이다.



[그림 1] 『곽해룡전』 표지(출처: 오케이서적)



[그림 2] 『장백전』 표지(출처: 오케이서적)

(2) 시각적 근거

『곽해룡전』 [그림 1]

- #1. 뒤 인물을 보면, 말을 타고 힘차게 달려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천천히 되돌아오고 있는 듯하며, 암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다. 아버지를 구출하지 못한 채 돌아오며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2. 유일하게 갑옷을 입고, 천막 공간 안에 앉아 있는 인물은 높은 지위를 가진 장군, 해룡임을 추측할 수 있다. 해룡의 군사로 추측되는 인물들에는 같은 청록색과 빨간색을 사용하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인물에만 노란색을 사용했다. 이는 특이점을 가진, 즉 상대편임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노란색의 옷은 고대 중국 황제의 일상복으로 일컬어지는 곤복과 면류관이며, 해당 인물이 황제임을 추측할 수 있다.
- #3. 짙은 초록색의 산 테두리를 활용한 2분할 구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두 장면을 함께 담아내었다. 또한, 서로 다른 장면임을 나타내기 위해 원근법에 어긋나게 뒤 인물을 더 크게 묘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유충렬전』 표지(출처: 오케이서적)

2.2. 유형 2

주인공이 상대편을 무예로 무찌르는 장면

(1) 장면분석

① 『유충렬전』 [그림 3]

- #1. 명나라가 패전을 거듭하여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을 때, 용인감과 장성검으로 무장한 주인공 유충렬이 천사마를 타고 나타난다.
- #2. 무예와 도술로 이들을 제압하고
- #3. 목숨이 달린 천자를 구출하는 장면이다.

② 『조웅전』 [그림 4]

주인공 조웅이 강선암으로 돌아가던 중 서번이 침입하고, 이들을 치러 가던 중 월경도사에게 얻었던 갑주와 보검을 활용하여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면이다.

(2) 시각적 근거

『유충렬전』 [그림 3]

- #1. 용인갑(갑옷)과 장성검(칼) 그리고 천사마(말), 즉 갑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탄 채 호기롭고 용감한 표정으로 칼을 휘두르고



[그림 4] 『조웅전』 표지(출처: 옛날물건)

있는 가운데의 인물이 유충렬일 것으로 추측된다.

#2. 상대편이 유충렬의 칼을 맞아 말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인물들은 두려워하며 도망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3. 뒤쪽에서 신하들에게 호위를 받으며 서 있는 인물은, 빨간색의 곤룡포를 입은 전형적인 조선 시대 임금 모습으로서 해당 인물이 천자임이 추측된다. 또 가슴을 쓸어내리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상황이 무마되어 안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유형 3

주인공이 상대편과 정면으로 맞서는 장면

(1) 장면분석

『유문성전』 [그림 5]

- #1. [상단] 유 승상의 아들 문성은 과거를 보러 가던 중 담 너머로 춘영을 보고 첫눈에 반하고 이후 둘은 결혼을 약속한다.
- #2. 그러나 달목과 결혼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춘영은 자결을 결심하고 문성에게

- 편지를 보낸다. [하단] 문성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춘영을 만나고,
- #3. 춘영은 남장을 한 후 둘이 함께 길을 나서던 중 주원장의 군사와 마주쳐 싸우게 되지만
- #4. 이후 문성은 주원장이 천자가 될 인물임을 알고 화해하여 같은 편이 된다. 해당 표지는 집이라는 사물 활용을 통해 각기 다른 두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2) 시각적 근거

『유문성전』 [그림 5]

- #1. 문성이 담 너머로 춘영을 보고 반했다는 서사가 둘의 만남의 시작으로 소설 내에서 중요한 요소인 만큼, 춘영의 집 담이 세밀한 선과 별도의 색을 활용하여 묘사되어 있다.
- #2. 눈물을 흘리는 듯한 춘영의 손 위치와 그녀 앞에 놓인 편지를 보며 추측할 수 있다.
- #3. 오른쪽 하단에 칼을 위로 치켜든 인물이 문성임이 추측된다. 그 이유로는 등 뒤에 있는 여자의 얼굴이 남장을 한 춘영으로 추측되며, 다른 인물들이 타고



[그림 5] 『유문성전』 표지(출처: 오케이서적)



[그림 6] 『옥단춘전』 표지(출처: 오케이서적)

있는 말들은 갈색이지만 문성의 말만 흰색으로 묘사되어 있다.

#4. 오른쪽 우측 중앙의 잔디 선상을 기준으로 대립하는 구조가 나타난다. 그러나 타 표지들에서는 주인공과 상대를 묘사하는 색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과 달리, 이들의 갑옷과 깃발 색이 같은 것을 보아 추후 같은 편이 됨을 암시함을 알 수 있다.

2.4. 유형 4

주인공이 상대편을 다스리는 장면

(1) 장면분석

① 『옥단춘전』 [그림 6]

- #1. 연광정에서 잔치하던 김진희가 친구 이혈룡이 온 것을 알고는 잡아 죽이려 하자
- #2. 어사출두를 하여 김진희의 죄를
- #3. 엄하게 다스리는 장면이다.

② 『장화홍련전』 [그림 7]

계모 허 씨가 친아들 장식을 시켜 장화를 연못에 빠뜨려 죽이는 순간 호랑이가 나타나 장식을 벌하는 장면이다.



[그림 7] 『장화홍련전』 표지(출처: 고려대학교 도서관)

③ 『전우치전』 [그림 8]

조정 of 권세가들이 사리사욕만 채울 때 전우치가 선관의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대궐로 와 문무백관의 새해 축하를 받던 임금에게, 옥황상제의 명령이라며 황금 들보를 만들어 바치라고 하는 장면이다.

(2) 시각적 근거

『옥단춘전』 [그림 6]

- #1. 연광정으로 추정되는 넓은 정자가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묘사되어 있으며 인물들이 이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매체임을 알 수 있다.
- #2. 배에 탄 인물 중 빨간색 옷을 입은 이가 눈에 띄는데, 여유롭게 육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다른 인물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는 것을 보아 해당 인물이 출두한 암행어사로 추정된다. 또한, 배에 꽃혀 있는 깃발은, ‘영기’로서 대장의 명령을 군중에 전달할 때 쓰이는 작은 사각기이다.
- #3. 연광정 근처에 분포하며 전부 흰색 옷, 즉 도포나 두루마기로 추정되는 일상복을 입은 인물들이 황급히 도망가는 것을 볼



[그림 8] 『전우치전』 표지(출처: 오케이서적)



[그림 10] '연광정' 실제 사진

수 있다. 암행어사와 함께 온 청록색과 빨간색 옷차림의 인물들은 신하로 추측되며, 이들 중 육지에 있는 인물들은 손에 빨간색의 몽둥이와 같은 물건을 들고 잔치하던 인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듯 보인다. 또한, 연광정에 놓인 식탁의 접시들도 심히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아, 암행어사 일행이 예상치 못하게 배를 통해 갑작스럽게 들이닥쳤음을 추측할 수 있다.

2.5. 이 외 유형

상대편을 물리치러 가는 장면, 영웅 등장 직전의 위기 장면

(1) 장면분석



[그림 9] 『설인귀전』 표지(출처: e뮤지엄)

① 『설인귀전』 [그림 9]

주인공 설인귀가 병사들을 데리고 전장으로 나가는 장면이다.

② 『금방울전』 [그림 11]

상단: 금방울의 탈을 쓰고 태어난 금령의 모습이다.

하단: 금선 공주가 요괴에게 납치당하는, 소설 속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3. 결론

서두에서 제시했듯, 이 연구는 딱지본, 영웅소설, 한국전쟁의 시기와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했으며, 10개 표지의 시각적 서사는 대립 상황을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상대편이 주인공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장면, 2) 주인공이 상대편을 무예로 무찌르는 장면, 3) 주인공이 상대편을 다스리는 장면, 4) 주인공이 상대편과 정면으로 맞서는 장면이다. 그렇다면 세창서관은 왜 딱지본의 시대적 가치가 상당히 희미해진 1952년에 오히려 많은 딱지본



[그림 11] 『금방울전』 표지(출처: 국립한글박물관)

고소설을 간행했으며, 왜 특히 영웅소설에 주목했을까?

이에 대한 답을 본 시각적 연구를 통해 찾을 수 있었다. 앞선 1), 2), 3), 4)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중 8개의 표지는 모두 주인공과 상대편이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다. 특히나 주목할 만한 지점은 그중 7개가 주인공이 승리하고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장면을 표지로써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외적인 하나의 표지는 주인공과 상대편이 싸우고 있는 장면이지만, 두 인물이 이후 같은 편이 됨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색채의 활용이나 장면의 구성에 있어서 주인공이 누군지 한눈에 들어오기에 이러한 서사적 특징이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덕분에 독자가 책 표지를 보며 어떤 장면인지 상상할 때, 영웅으로 묘사되는 인물이 이기는 상황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금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불안 요소가 많았던, 생사가 오가는 시기에 책은 뒷전이거나 두고 가야 하는 대상이었을 것이다.

러나 딱지본은 판형이 작고 분량도 적은 데다 값도 저렴하여 이러한 부담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책이었다. 더불어 딱지본은 책의 얼굴로서 기능하는 표지 디자인의 시작이기도 했다.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 주인공이 악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표지에 생생히 담긴 딱지본 영웅소설을 골라 재간행했다는 것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세창서관이 당시의 불안한 현실 속에서 서적상으로서의 일련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서민들이 딱지본이라는 소설을 통해서라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품고 느끼길 바랐음을 말이다. 46

참고문헌

엄태웅, (2016), 『세창서관의 활자본 고소설 간행 양상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제64호, 동양고전학회